

리듬운동을 활용한 수업 개발 연구: <신체언어>수업을 중심으로*

김주희 · 김은혜**

신한대학교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of the Rhythmic Exercise: <Body Language> Class

Kim, Joo-hee · Kim, Eun-hye

Shinhan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he Rhythmic Exercise. This class methods for A University <Body Language> Class. The goals and content of learning were organized according to body theory and body practice. Body theory is the theory of cultural theorists understand the body as a background. Body practice is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ity through body movements.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suggesting one extensive method for university student.

key words : Body Language, Rhythmic Exercise, Body, Movement, Integrated Instruction

I . 서론

본 연구는 리듬운동을 활용한 <신체언어>수업을 소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A대학의 <신체언어>수업의 경우 교양인문강좌로 교과영역이 구분되

어 있지만, 이론과 함께 실기수업이 병행된 통합형 수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교양인문강좌 안에 리듬운동적인 부분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2010년도부터 A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적응실태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

* 이 연구의 내용은 2015 한국리듬운동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실제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써 분석적 논증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sunjang33@gmail.com

문이다. 무용학이나 체육학과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실기를 연마해야하고, 입시과정에서 별도의 실기고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 탈북민이나 외국인의 학과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체감이 낫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A대학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 학생 간의 언어적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항상 문제되고 있었다. 특히 학생 간에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외국인 학생을 절대평가 대상자로 구분한 점이다. 게다가 A대학은 탈북대학생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다. 교학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년이 정체되어 있는 탈북학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관리 차원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에게 절대평가방식을 통해 학사관리를 하는 것은 수업 자생력과 점수 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한국학생들에게는 점수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조화롭게 수업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였기에 언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체움직임을 활용하게 되었다.

‘신체언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비언언적 기호에 의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즉 몸짓, 손짓, 표정, 몸의 에너지, 움직임의 동선과 몸 방향 등과 같은 신체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우리가 신체언어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첫 번째, 때로는 신체언어가 언어보다 더 전달력이 높은 표현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체언어가 의도된 의사소통뿐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무의식적 신호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화되는 무의식적 신체언어는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강력한 메시지를 함의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신체언어>수업은 이론수업을 통해 신체언어가 함의

하고 있는 여러 해석 지점을 살펴보고, 실기수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체언어>수업은 16주 수업 중 오리엔테이션과 시험을 제외하고 7회는 이론수업으로, 6주는 실기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학기의 강의 평가를 반영하여 약간의 구성을 보완하거나 교체하고 있다. 실기수업의 횟수는 2010년도에는 3회였으나 강의평가에서 신체움직임 수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받아 점차 늘어 6회까지 제한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2학기 수업을 기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신체언어>이론수업 구성

<신체언어>이론 수업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이론화하는 다양한 범주 중에 신체성(corporeality)이란 독특한 텍스트에 주목한다. 몸을 근간으로 연구되는 춤과 스포츠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정치, 역사적 배경을 ‘다르게 접근하기’ 하고자 한다. 신체 움직임 속에는 인종, 민족, 계급 등과 같은 무한한 정체성이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신체 움직임 속에 체계화, 규격화, 기호화 되어 있다. 신체 속에 내재된 기호들 속에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론수업에서는 영화, CF, TV 드라마, TV 예능 등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7주로 구성된 이론 수업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참고자료로는 문화연구의 개론서인 김우창 등(1996)의 『103인의 현대사상: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을 참고한다.

1주차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본다. 조선시대 이후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드러내거나 움직이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사회적 인식이 식민지시대와 해방, 또 전쟁 이후 미군문화의 수용 후 어떻게 전환되었으며, 어떠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신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2주차에서는 ‘몸과 권력’이다. 발레리나의 신체와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 사례를 통해 권력이 신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율하는지 알아보고, 몸에 체화된 권력을 통해 사회적 상황 및 역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박정자(2008)의 『시선은 권력이다』와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대해 연구한 김주희(2014)를 참고하며, Foucault(1975)의 논의를 통해 설명한다.

3주차에서는 ‘계급화 된 몸’으로 계급에 따라 신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신체 관리 방식을 통해 계급의 재생산이 이뤄지는 과정을 골프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연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 수업을 위해 권기남(2010)의 연구를 참고자료로 한다. 또한 Bourdieu(1979)가 계급을 논의하고 있는 기념들을 함께 설명한다.

4주차에서는 오늘날 몸과 관련한 이슈 중에 가장 높은 관심이 있는 ‘다이어트와 신체’이다. 미디어는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다이어트에 성공 사례 소개하는 방송 내러티브를 분석함으로써 다이어트를 통해 몸을 관리하는 오늘날의 시선을 재조명 한다. 수업의 참고교재로는 남상우와 고은하(2011)의 연구 자료를 참고한다.

5주차에서는 ‘젠더화 된 신체’이다. 젠더는 신체를 단순히 생식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보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성이다. 즉, 젠더적 관점에서 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수반하고 보다 깊이 있게 인간의 몸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젠더화된 신체’에서는 ‘국극’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장르를 소개하고, 그 공연이 갖고 있는 젠더적 소구방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6주차에서는 ‘인종과 신체’이다. 인종에 따라 신체를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과 그와 관련된 문화 이론가들의 이론을 알아보고, 신체를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무용과 스포츠에서 인종적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7주차에서는 ‘몸의 해체’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연예술은 직접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던 전통적인 퍼포머 대신에 홀로그램이나 모션캡처 기술이 생산해내는 가상의 몸으로 대체되고 있다. 오늘날의 공연예술 안에서 영상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신체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본다.

III. <신체언어>실기수업 구성

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신체언어>수업의 교육목표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 속에 내재된 무한한 정체성을 만나고, 다양한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 또한 신체움직임과 각국의 공통된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놀이, 음악을 활용하여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러한 신체 움직임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능력을 배양시켜 외국인들과 탈북대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표가 있다.

실기수업에서의 교육내용은 신체를 통한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2회 수업에는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경험했던 몸의 기억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고, 3·4회 수업에서는 신체 움직임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5회 수업에서는 각 국의 공통된 놀이 문화와 노래를 통해 공통된 정서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6회 수업에서는 공동 창작 작업을 통해 학습자간의 소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6회차 수업의 학습방법은 전달식 강의 설명과 시범교육, 개인 또는 그룹별 실습수업이 병행되도록 하였다.

2. 수업과정 및 내용

1회차 실기수업의 제목은 ‘Hi~my body’이다. 이 수업에서는 전체적인 수업진행방식을 파악하고,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세부계획으로는

①ppt로 7회로 진행되는 수업과정 소개, ②신체 구석 구석 위치 탐색하기, ③자세를 정렬과 부정렬 시키면서 몸 자세 파악하기, ④각 관절의 움직임 범위 파악하기 이다.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오디오, 스피커이다.

2회차는 ‘나에게 몸으로 말 걸기’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여대생들에게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참여하게 한다. 세부계획으로는 ①자신의 신체 안마하기, ②자유롭게 걷다가 원하는 공간에서 포즈 취하기, ③한정된 공간에서 음악의 리듬에 맞춰 뛰기, ④스트레치로 마무리로 구성한다.

3회차는 ‘너에게 몸으로 말 걸기’이다. 이 수업에서



그림 1. 〈신체언어〉 실기수업 장면

는 타인의 신체를 인식하고, 이해를 통해 움직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도록 한다. 세부계획으로는 ①견다가 눈이 마주치는 사람과 악수, 악수한 손을 각자의 방향으로 당기면서 공간 이동, ②인1조로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공간과 사물을 인지하기, ③인1조로 상대방 관찰하기와 움직임 특징 따라하기 이다.

4회차 수업은 ‘몸으로 소통하기’이다. 이 수업에서는 상대방과의 움직임과 나의 움직임을 교류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세부계획으로는 ①상대방과 함께 마사지, ②상대방을 이용한 스트레치, ③상대방과 eye contact 하면서 움직이기, ④상대방과 스트레치로 마무리하기 이다.

5회차의 수업제목은 ‘어우렁~더우렁~우리는 하나’이다. 이 수업에서는 명칭이 다르지만 같은 놀이를 신체움직임과 결합한다. 이를 통해 공통된 정서와 정체성을 찾고,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세부계획으로는 ①‘꼬리잡기 놀이’를 활용한 신체움직임, ②‘짜짓기 놀이’를 활용한 신체움직임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를 일체화 한다.

6회차 수업은 ‘몸으로 경계 허물기’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심화학습으로 신체움직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킨다. 세부계획으로는 ①각 조별로 주제와 줄거리 만들기, ②신체움직임을 연결하여 story telling, ③조별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시연을 하도록 한다.

하였다. 이 수업은 2010년도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16주 수업을 7회차의 이론과 6회의 실기가 병행되는 통합형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론수업의 경우 문화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논제로 ‘한국 사회에서 몸에 대한 인식’, ‘몸과 권력’, ‘계급화 된 몸’, ‘다이어트와 신체’, ‘젠더화 된 신체’, ‘인종과 신체’, ‘몸의 해체’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수업에서는 ‘Hi~my body’, ‘나에게 몸으로 말 걸기’, ‘너에게 몸으로 말 걸기’, ‘몸으로 소통하기’, ‘어우렁~더우렁~우리는 하나’, ‘몸으로 경계 허물기’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소통을 도모하였으며, 수업의 내용을 리듬운동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 수업을 소개한 것은 리듬운동을 활용한 인문교양강좌를 소개함으로써 리듬운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통합적 교육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내고자 하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통합교육을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듬운동을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되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리듬운동을 활용한 수업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Bourdieu, P. (1979).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서울: 새물결, 2005.
- Foucault, M. (1975).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 (오성근 역.). 서울: 나남.
- 권기남(2010). 상류계급 골프참여자들의 아비투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인문교양과정에서 리듬운동을 활용한 사례로 A대학 교양학과의 <신체언어>수업을 소개

- 계급생산자.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18.
- 김우창, 유종호, 도정일, 김상환, 김성기, 이정우 등
(1996). **103인의 현대사상: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 서울: 민음사.
- 김주희(2014). 1970년대 한국 경공업 여성노동자의
신체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3,
1-20.
- 남상우, 고은하(2011). 다이어트 영웅의 탄생: 리얼리
티 쇼의 비만 담론과 문화효과. **한국스포츠사
학회지**, 24(2), 69-98.
- 박정자(2008). **시선은 권력이다**. 서울: 기파랑.

논문투고일 : 2015. 4. 30.

심 사 일 : 2015. 6. 24.

심사완료일 : 2015. 6. 28.